
토론문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

본 토론문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분야에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자 하며, 아태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실행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지역적 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구하려 한다. 또한 아태지역 내 모범사례의 구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역량 구축 및 제도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필자의 이름은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이다(아디는 '최고 지위'라는 뜻이다). 광활한 태평양에 위치한 태평양 섬나라 22개국 중 하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사는 태평양 지역은 섬 국가의 수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태평양공동체 사무국에 속한 국가로는 아메리칸사모아,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트케언 섬, 솔로몬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윌리스푸투나 제도 등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우리와 같은 지역에 속한다. 이 두 국가는 태평양 지역의 16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포함되지만, 방금 언급된 다른 대다수의 섬나라와는 달리 소규모 도서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우리 태평양 지역의 많은 토착문화는 우리 고유의 풍부한 구전역사와 노래, 성가, 춤의 형태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대부분은 영국, 독

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더 최근에는 미국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식민 주의 국가의 언어로 기록되고 교육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방언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를 정의 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프랑스 어나 영어로 이루어진 인류학적 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갖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네스코 태평양 세계유산 실행계획에서도 강조되어 왔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활한 해양지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섬 지역과 인구

- 역내 문화유산 관리기구들은 소규모이며 매우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국가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이동에 상당한 활동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고립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실행 일정에 영향을 미침
- 대다수 육지(및 해상) 지역의 소유권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화 부흥활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광범위한 협의과정이 필요함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활동과 연관이 있다. 나는 피지 국가유산문화예술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2003년 파리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될 당시 유네스코 총회에서 태평양 지역 대변인으로 연설에 나섰다.

이 역사적 회의에서 태평양 지역은 이처럼 중요한 협약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16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5개국만이 본 협약을 채택했다. 이는 협약의 비준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태평양 지역 국가간의 역량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내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제한하는 한계가 되었다.

아피아에 위치한 유네스코 태평양지역사무소는 협약 당사국들을 한자리 모아 국가 적 차원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역량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력 하에 2011년 통가왕국에서 개최된 지역 회담

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제시되었고 태평양 지역 참가국들은 이에 지지를 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평양 회원국들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데 특히 주력함으로써 협약을 활성화한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과 태평양 회원국들의 센터 회원가입 추진을 통해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에 대한 유네스코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
- 정보공유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준비를 통해 태평양 지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 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 및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 유네스코의 회원국들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조 하에 제2차 네트워크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한다.

이와 같이 본 권고안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될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지역공동체들은 역량 구축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생존을 위한 요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유산을 파악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국가별 인간문화재(LHT)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 점은 1999년 피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공예협의회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에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대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6년 피지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확립하고 인간문화재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는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경험과 성공 및 문제 사례를 기꺼이 나누고 싶다.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이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둔 사무국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무국을 매개로 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목록을 체계화하고 2년 단위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인

간문화재 우수상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인간문화재 발굴 및 지정 사업과 더불어 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육지 및 해상활동을 위한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영역으로 확인된 몇 가지 분야가 있다. 언어 부흥을 토대로, 국경을 넘어 지역 전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가져올 이러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육지 기반의 두 가지 잠재적 사업

식량안보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전통지식의 활성화, 전통기술의 복원, 특히 식량 보존, 작물재배 및 어업, 역법 및 관련 관습, 교육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연관된 관습, 재해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규 교육체계 내 교과과정의 개발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통 가옥 건축기술과 건축물의 복원 및 기록화, 세계유산협약 관련 무형문화유산 실연자의 인증, 공동체가 전통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규약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지역 문화유산 목록의 보유는 공식교육체계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해양

역내 국가들은 광활한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나 최근 해양과 관련한 수많은 전통 기술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이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세계유산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과 연계된 해양 부흥 프로그램 및 활동이 토착 항해기술 및 조선기술의 부흥과 관련된 구전역사 수집과 문화유적지 지도제작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또한 마라에 타 푸타푸아 테아(Marae Taputapua Tea)와 같은 다국적 세계유적지들은 태평양지역에 새롭게 설립된 항해협회들과 함께 교육부, 문화부, 환경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전통기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이러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지원은 바누아투에 위치한 다언어·다문화 조직인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PIM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협회는 태평양 지역 문화센터 및 박물관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문화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태평양공동체사무국(SPC) 지역문화와 교육 전략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교육 활동은 정부 간 기구, 태평양공동체 사무국, 태평양 예술문화위원회 등을 통한 기타 지역 사업 및 계획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장관급 회담에서는 지역 문화와 교육 전략이 각국 교육부 장관들의 지지를 얻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인간문화재 지정, 기술 부흥복원 등은 지방 및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전반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